

칼바르트의 신적 위격개념 'Seinsweise'에 대한 개혁주의적 비평

김 용 준

대신대학교, 조직신학

1 서론

칼 바르트(Karl Barth)는 현대신학의 출발점에서 있는 사람이다. 그의 신학은 많은 현대 신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다. 특별히 삼위일체 신학에서 바르트의 공헌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혹자들은 바르트가 삼위일체 신학을 슐라이에르마허의 무시로부터 다시금 재생시켰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바르트의 삼위일체 신학의 재생산에 대한 평가에 가려 그의 삼위일체 신학의 문제점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의 삼위일체 신학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 그가 사용한 용어가 큰 신학적 논쟁을 일으켰다. 바르트는 전통적으로 사용한 위격(*persona*)이라는 용어의 위험성 즉 삼신론적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 논문접수일: 2012. 1. 23
 논문수정일: 2012. 3. 8
 게재확정일: 2012. 3. 19

그 용어대신 ‘존재의 양태’ (*Seinsweise*)라는 용어를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용어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이 다양성 때문에 바르트의 이해가 바른 것인지 아닌지 신학적 혼돈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심지어 루이스 벌코프도 이 용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러한 혼돈과 오해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바르트가 사용한 용어 ‘존재의 양태’를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우선 바르트의 용어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살펴보고, 바실(Great St. Basil)의 용례와 바르트의 「교회교의학」에서 사용한 의미와 비교하고 개혁주의 신학적 위격개념에 대한 논의로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2 본론

2.1 바르트의 용어 ‘존재의 양태’ (*Seinsweise*)에 대한 다양한 평가

바르트가 사용한 ‘존재의 양태’란 용어는 많은 신학적 문제를 야기했다. 이 ‘존재의 양태’라는 단어가 양태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생각들로 나뉘어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바르트의 ‘존재의 양태’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모든 학자들의 의견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핵심인물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

2.1.1 양태론적 이해로서 ‘존재의 양태’에 대한 비평

바르트가 양태론에 빠졌다고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은 판넨베르그(W. Pannenberg)¹와 몰트만(J. Moltmann)²이다.

먼저 판넨베르그는 바르트가 아이작 도너(A. I. Dorner)에 의존한다고 지적한다.³ 문법적으로 세 개의 복합체(주체, 객체, 그리고 술부)들이 분석되

있을 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세 존재의 양태로서 계시의 개념, 즉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주로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진술로부터 삼위일체를 가져옴으로써 해결책을 찾았다고 바르트는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⁴ 판넨베르그는 계속해서 지적하기를 바르트는 삼위일체적 서술들을 성경이 증거하는 계시의 내용들로부터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개념으로부터 발전시켰다는 것이다.⁵ 포웰(S. M. Powell)에 따르면, 판넨베르그는 바르트가 삼위일체 교리를 주체적인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추론했다고 생각한다. 즉 자신의 논리적 구조 안에서 엄밀하게 기초된 추론인 것이다.⁶

몰트만 역시 바르트가 양태론 자가 되었다고 비판한다. 몰트만⁷에 따르면, 바르트는 ‘하나님의 주되심’ 과 ‘하나님의 본질의 개념’ 을 동일화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되심’ 과 ‘하나님의 신성의 개념’ 을 동일하게 하는 ‘절저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단일성 사상’ 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인격화(personification)라고 불린 것은 이러한 문제에 속한다. 이 모든 주권적 주체 개념들이 신적 주되심과 그의 계시에 차용

1 W. Pannenberg, “Die Subjektivität Gottes und die Trinitätslehre: Ein Beitrag zur Beziehung zwischen Karl Barth und der Philosophie Hegels,” *Kerygma und Dogma* 23 (1977): 25-40; W. Pannenberg, *Problemgeschichte der neueren evangelischen Theologie in Deutschland*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97), 248-260.

2 J.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Zur Gotteslehre* (Gütersloh: Chr. Kaiser, 1994[1980]), 154-161.

3 T. Bradshaw, “Karl Barth on the Trinity: A Family Resemblance,”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39(1987): 157.

4 W. Pannenberg, *Systematische Theologie, Band I* (Göttingen: Vandenhoeck, 1988), 330-331.

5 Pannenberg, *Systematische Theologie*, 331.

6 S. M. Powell, *The Trinity in German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233.

7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156-157.

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성과 ‘나’ (Ich)는 세 위격들에 돌려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양태’에게 돌려져야 하는 것이다.⁸

하나의 인격성(personality)은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처럼 아버지에게 돌려져야하거나, 또는 사벨리우스(Sabellius)처럼 ‘존재의 양태’로서 모든 세 위격들을 설명하는 주체에 돌려져야 한다. 바르트가 신적 주체에 대한 관념론적 고려를 가져오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삼위일체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주되심의 이해와, 그의 주되심에 의한 신적 주체에 대한 해석을 보존하려는 삼위일체 교리의 적용 안에 있다고 몰트만은 보기 때문이다.⁹ 그러므로 바르트는 하나님의 단일성이라는 이해 안에서 비-삼위일체적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동일한 주체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¹⁰

이는 바르트가 관념론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몰트만은 비판한다.¹¹ 헤론(A. I. C. Heron) 역시 관념론의 이해가 바르트를 양태론적 문제로 인도한다고 지적한다.¹² 토랜스(A. J. Torrance)는 헤론의 이러한 해석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의에는 양태론적 특징을 가진다. 바르트가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해에서 양태론적 해석으로 기울어졌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면서 헤론은 바르트가 하나님 안

8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157-158.

9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160.

10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160-161.

11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158; B. C. Leslie, *Trinitarian Hermeneutics: the Hermeneutical Significance of Karl Barth's Doctrine of the Trinity* (New York: Peter Lang, 1989), 107.

12 A. I. C. Heron,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in the Bible, th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and Recent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167.

에서 삼중성과 일체성 모두를 강조하는 서양의 일반적인 경향과 더불어 일체성에 더욱 우선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바르트에게서 본질적인 연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적하는 심오하고 중요한 관찰을 헤론은 계속하고 있다. 교회교의학의 전제로 나타나는 한 가지, 즉 하나님 자신의 세 번의 반복은 그 자신에 대한 관계(his relation to himself)보다 더욱 두드러진다. '다름' (otherness)을 지시하는 것은 '자기-표현' 보다 침묵한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삼신론은 사벨리안주의보다 더 큰 우려스러운 것이 된다.¹³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메이어링(E. P. Meijering)은 바르트의 이용어가 사벨리안주의를 향해 기울어져있다고 지적한다.¹⁴

2.1.2 독립적 이해

힐(W. J. Hill)은 바르트가 사용한 용어 '존재의 양태'에 대한 비판과 지지 사이의 중간점을 취한다. 힐¹⁵에 따르면, '존재의 양태'라는 용어는 이미 고대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τρόπος ὑπάρξεως*의 문자적 번역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제한된 의미에서 위격(*ὑπόστασις*)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해된다. 바르트의 이 교리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양태론은 확실히 아니지만, 그 용어는 양태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불리는 것에 적합하다고 힐은 주장한다. 힐은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3 A. J. Torrance, *Person in Communion: Essay on Trinitarian Description and Human Particip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Volume One of Karl Barth's Church Dogmatics* (Edinburgh: T&T Clark, 1996), 103.

14 E. P. Meijering, *Von den Kirchenvätern zu Karl Barth: Das altkirchliche Dogma in der 'Kirchlichen Dogmatik'* (Amsterdam: J.C. Gieben Verlag, 1993), 57; 244.

15 W. J. Hill, *The Three-Personed God: The Trinity As A Mystery of Salvation*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Press, 1982), 117.

바르트의 삼위일체 교리는 명백히 양태론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또한 종속론의 위협을 넘어선다. 말하자면 계속해서(논리 안에서이지, 시간적 의미가 아니다) 성령이 덜 신성하다는 의미로, 아들을 나게 하고, 성령을 발출(spirate)하게 하시는 하나의 신성의 충만함으로써 아버지를 이해하도록 결코 허락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셋에 대한 부정에서 인격성의 충만한 특권에 대해 어떤 타협이 허락되어야 한다.¹⁶

토랜스(A. J. Torrance)는 삼위일체적 양태론으로서 바르트의 ‘존재의 양태’에 대한 힐의 이해를 ‘삼위일체적 양태론’으로 평가한다. 토랜스는 설명하기를 ‘이러한 방식에서 삼위일체적 양태론이 될 수 있을지 없을 지는 의심스럽다. 그러나 힐의 지적은 바르트의 설명에 대해 근거가 되는 신적 단순성을 고려하도록 한다.’¹⁷

2.1.3 양태론적 비평에 대한 반대

위격개념 대신 사용하는 바르트의 ‘존재의 양태’가 양태론이라는 주장에 대한 상반되는 관점들이 있다. 조월스(D. W. Jowers)는 바르트의 ‘존재의 양태’의 이해를 옹호한다. 바르트가 주장하는 ‘존재의 양태’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양태론이 아니라고 말한다. 칼 바르트가 양태론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다섯 가지 이유를 조월스는 지적한다.

- 1) 양태론이 계시에 의해서 함축된 정보뿐만 아니라, 계시 자체에 대한 사상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 2) 양태론 자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넘어가, 삼위일체대신 사위일체를 강조한다고 바르트는

16 Hill, *The Three-Personed God: The Trinity As A Mystery of Salvation*, 117.

17 Torrance, *Person in Communion*, 103.

주장한다. 3) 절대적으로 거부되어야 할 주장을 하고 있는 성부고난설과 암암리에 연합하는 양태론 자들을 바르트는 고발한다. 4)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남녀 관계로서 해석함으로 바르트는 양태론에 반대한다. 5) 바르트는 양태론 자들과 싸우고 있다.¹⁸

특별히 두개의 이유를 통해 바르트가 사용한 '존재의 양태'라는 용어가 양태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조월스는 지적한다. 첫째로, 바르트가 그 용어를 교부들의 용어인 *τρόπος υπάρξεως*와 문자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의도한다(그것은 바실(Great St. Basil)과 닷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를 동일하게 관련시킨다). 둘째로, 바르트는 분명히 '존재의 양태'라는 용어가 의도된 의미를 객관적으로 신적 본질과 동일한, 말하자면 인격의 습관적인 의미와 동일한 '실제하는 관계들'(subsistent relations CD I/1 364)과 동일화시킨다.¹⁹ 이와 관련하여 토랜스(T. F. Torrance)는 바르트의 개념인 '존재의 양태'는 갑바도기아 신학자들의 전통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과 같다고 주장한다.²⁰

용커(W. D. Jonker)는 바르트가 자주 셋-안의-단일성이란 사상으로 인하여 그 개념이 양태론으로 고발되곤 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그 고발 뒤에 있는 동기는 바르트가 신적 인격들의 독립성(주체, 개별성)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비평가들은 바르트가 칼라너와 다르게 하나님의 단일성을 너무 고려한 나머지 하나님의 계시의 셋과의 화합 안에서 일체성을 가져오려 한다고 용커는 지적한다. 용커에 따르

18 D. W. Jowers, "The Reproach of Modalism: A Difficulty for Karl Barth's Doctrine of the Trinit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6 (2003:2): 238-240.

19 Jowers, "The Reproach of Modalism: A Difficulty for Karl Barth's Doctrine of the Trinity," 244.

20 T. F. Torrance, *The Trinitarian Faith: The Evangelical Theology of the Ancient Catholic Church* (Edinburgh: T.&T. Clark, 1988), 219.

면 어거스틴에 의해 설정된 서방신학의 전형적인 선입관이며, 또한 삼심론에 대한 두려움이 양태론으로 기울어지도록 했다는 것이다.²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경험으로부터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셋의 사상을 투사한다는 솔라 이에르마허의 의미 안에서 바르트는 양태론 자가 아니라고 말한다.²²

바르트의 모호한 ‘나’ 라는 말의 사용은 그의 셋의 존재의 양태 뒤에, 그리고 하나의 주체 또는 한 인격 뒤에 존재한다는 오해로 인도할 수 있다(전통적 의미에서)고 이시드로(C. T. Isidro)는 지적한다.²³ 이러한 모호한 말에도 불구하고 양태론에 대한 그의 거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르트는 양태론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²⁴ 존재와 주체와의 화해 없이, 세 존재의 양태(drei Seinsweisen)안에서 본성, 이해(the understanding/오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의식의 유일성을 바르트는 지시한다.²⁵ 그래서 바르트는 삼심론을 거부한다는 것이다.²⁶

또한 루이스 벌코프도 바르트의 존재의 양태가 사벨리안주의는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²⁷

2.2 바르트의 Seinsweise와 바실의 ‘τρόπος ὑπάρξεως’ 비교

바르트의 ‘존재의 양태’ 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 가운데 공통적인 문제가

21 W. D. Jonker, *Die Gees van Christus: Wegwysers in die Dogmatiek* (Pretoria: N.G Kerkboekhandel, 1981), 112

22 Jonker, *Die Gees van Christus: Wegwysers in die Dogmatiek*, 113.

23 C. T. Isidro, *Die Trinitätslehre Karl Barths als dogmatisches Strukturprinzip* (Bad Honnef: Bock und Herchen, 1983), 599.

24 Isidro, *Die Trinitätslehre Karl Barths als dogmatisches Strukturprinzip*, 600

25 Isidro, *Die Trinitätslehre Karl Barths als dogmatisches Strukturprinzip*, 600-601.

26 Isidro, *Die Trinitätslehre Karl Barths als dogmatisches Strukturprinzip*, 601.

27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s Rapids, Michigan: Eerdmans, 1996[1938]), 83.

있다. 바르트가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가 바실이 사용한 전통적인 용어인 'τρόπος ὑπάρξεως'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다. 여기서 바르트의 '존재의 양태'와 바실(Great St. Basil)의 이해를 비교함으로써 그의 용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칼 바르트 사상 안에 있는 '존재의 양태'의 미묘한 의미를 전통적인 'τρόπος ὑπάρξεως'의 의미와 구분하는 일은 쉽지는 않지만, 칼 바르트의 '존재의 양태'가 의미하는 바는 전통적인 용어인 'τρόπος ὑπάρξεως'와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²⁸ 하인리히 헤페(Heppe)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그러므로 인격들은 우시아(ουσία)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양태(τρόπος ὑπάρξεως)에 의해서 다르다 - 인격들의 구분은 한 인격이 고정된 관념(certa notione)에 의해 다른 인격들과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세 인격들이 서로에게 대하여 서 있다는 관계에 의존한다. 신적 인격들의 관계는 존재의 양태(τρόπος ὑπάρξεως)다. 인격을 구성하지 않고 따로따로 구성하는 각각의 인격에 적당하고 비공유적인 존재의 양태는 그것을 세우고 다른 인격으로부터 그것을 구분한다.²⁹

바르트는 '존재의 양태'를 위격이라는 용어와 동일화하는 반면³⁰, 전통

28 P. M. Collins, *Trinitarian Theology West and East: Karl Barth, the Cappadocian Fathers, and John Zizioul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24-151. 콜린스는 이 책에서 이러한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바르트는 자신의 용어가 갑바도기아 신학자들의 용어와 동일하다는 데에 대해 콜린스는 바르트가 갑바도기아 신학자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149). 그러면서 바르트의 이해는 갑바도기아 신학자들이 사용한 용례와는 다르게 관념 주의적 관점이라고 비판한다(151).

29 H. Hepp, *Reformed Dogmatics: Set Out And Illustrated from the Sources*, trans. G. T. Thomson (London: Gerge Allen & Unwin Ltd, 1950), 114-115.

30 E. Jünger, *Gottes Sein ist im Werden: Verantwortliche Rede vom Sein Gottes bei Karl Barth. Eine Paraphrase*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1967), 37. 용례에 따르면 바르트는 인격

적 의미의 용어 *τρόπος ὑπάρξεως*는 인격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다른 위격들로부터 한 위격의 구분을 의미한다. 프레스티즈에 따르면, 존재의 양태(mode of *hyparxis*)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위격에 적용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존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성적인 원인으로부터 존재의 나옴에 대한 은밀한 적용을 포함하고 있었다.³¹

성 바실은 그의 책 「성령론」(*De Spiritu Sancto*)에서 이 용어를 언급한다. 바실³²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설명한다. ‘καὶ τὸ Πνεῦμα οὐσία ζῶσα, ἁγιασμοῦ κυρία· τῆς μὲν οἰκειότητος δηλουμένης ἐντεῦθεν, τοῦ δὲ τρόπου τῆς ὑπάρξεως ἀρρήτου φυλασσομένου.’ 이 문장에 대한 프레스티즈(G. L. Prestige)의 번역에 따르면 ‘성령은 살아있는 본질이다. 그리고 상황의 주인 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그의 발출에 의해 보이신다. 그러나 그의 존재의 양태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보존된다’³³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책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편집한 지어븐(H. J. Sieben)에 따르면, ‘성령의 발출은 신비다. 아타나시우스(Athanasius)로부터 다메섹 요한(John of Damascus)에 이르는 동방의 전통을 바실은 기술한다.’³⁴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지만 세 번째 위격이시라는 것이다.

바실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친구인 암필로카우스(Amphilochius of Iconium)로부터 기인한다. 암필로키우스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들을 본질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양태 또는 관계를 설

의 잘못된 개념을 대치하기 위해서 *Seinsweis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1 G. L. Prestige, *God in Patristic Thought* (London: SPCK, 1981[1936]), 245.

32 Basil of Caesarea, *De Spiritu Sancto(Über den Heiligen Geist)* in *Fontes Christiani*, trans & ed. H. J. Sieben, (Freiburg: Herder, 1993), 18. 46(210).

33 Prestige, *God in Patristic Thought*, 246.

34 Basil of Caesarea, *De Spiritu Sancto(Über den Heiligen Geist)*, 212. 각주에 있는 편, 역자의 언급을 보시오.

명한다.³⁵ 4세기 말 이후로, 존재의 양태(mode of hyparxis)는 신적 인격들의 특수들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신적 내용에서 어떠한 다양성도 없지만 이 용어는 위격들 안에 또는 휘포스타세이스(hypostaseis)안에 하나와 동일한 신적 존재가 구분된 대상 그리고 영구한 표시들 안에서 소개되기 때문이다.³⁶ 그러므로 바실에게서 이 용어는 실제로 존재의 동일 본성에 대한 언급이다. 즉 관계의 근원을 통한 두 번째 세 번째 위격이 첫 번째 위격과 근원의 관계로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토랜스(T. F. Torranc)를 비롯한 몇몇의 신학자들은 바르트의 개념인 '존재의 양태' 는 감바도기아 신학 전통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과 동일화 된다고 주장하지만, 콜린스는 특별히 토랜스의 이해를 비판하면서 바르트가 교회교의학에서 전통적 용어인 '존재의 양태' 를 차용할 때, 그 용어의 이해와 사용에 있어서 변형을 주목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³⁷

2.3 교회교의학에서 신적 인격개념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

바르트의 '존재의 양태' 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바르트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존재의 양태' 라는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의 「교회교의학」에 나타난 '존재의 양태' 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위에서 우리가 바르트가 사용한 '존재의 양태' 라는 용어가 전통적인 이해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바르트가 왜 이 용어를 사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해석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35 Prestige, *God in Patristic Thought*, 245.

36 Prestige, *God in Patristic Thought*, 248-249.

37 Collins, *Trinitarian Theology West and East*, 149.

바르트는 셋에서 일체성(Die Einheit in der Dreiheit)과 일체성 안에서 셋(Die Einheit in der Dreiheit)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의「교회교의학」에서 해석학적 문제를 위해 위격이라는 용어를 재정의 한다. 하나님의 일체성 안에서 셋에 대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원리에 대한 결정들은 어거스틴에 의해서나, 아퀴나스에 의해서나, 또는 위격 개념에 대한 개신교 교부들에 분석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근원으로부터 얻은 위격의 개념에 대한 과도하게 노력한 분석들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바르트는 위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존재의 양태’(Seinsweise)를 사용하기를 좋아한다.³⁸ 그는 절대적이지는 않고, 더 상대적이며, 더욱 간단하고, 더욱 분명하게, 위격이라는 단어에 의해 표현된 동일한 의미를 ‘존재의 양태’를 통해 표현하려고 한다.³⁹

‘존재의 양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옛부터 인격의 개념의 분석에서 사용된 보조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바르트는 생각한다.⁴⁰ 바르트에게서, 중세의 인격개념은 보에티우스의 정의에 의해서 세워졌다. 보에티우스의 정의는 ‘위격은 본성의 이성적인 개별적 실체’(persona est naturae rationalis individua substantia)이다.⁴¹ 따라서 이러한 이해에서 세 위격

38 K. Barth, *Kirchliche Dogmatik I/1: Die Lehre vom Wort Gotte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1940), 379.

39 R. K. Aboagye-Mensah, *Socio-political thinking of Karl Barth: Trinitarian and Incarnational Christology As the ground for his social action and its implication for us today* (Boston Spa, Wetherby West Yorkshire: 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er, 1984), 178; William Stacy Johnson, *Mystery of God: Karl Barth and the Postmodern Foundation of Theology*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1997), 44. 전통적인 사고와는 다르게 바르트는 하나님을 역동적이고 관계적으로 이해했다.

40 Barth, *Kirchliche Dogmatik I/1*, 379.

41 R. A.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Drawn principally from Protestant Scholas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3), 224; A.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4), 209.

들의 개념은 세 개별들 즉 삼신론을 의미한다고 바르트는 비판한다.⁴² 레슬리에 따르면 바르트에게 있어서 위격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1) 교회교리의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그것의 간결한 의미로서 일반적인 분명성의 부족, (2) 자기 - 의식으로서 인격성에 대한 현대적 관념의 도입으로 인한 약화된 혼동, 즉 위격 (*persona*)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개념이다.⁴³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르트는 초대교회에서 사용한 *τρόπος ὑπαρξεως*의 문자적 번역인 '존재의 양태' (Seinsweis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⁴⁴ '존재의 양태'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위격개념의 문제인 삼신론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바르트가 생각할 때, 전통적인 용어(*persona*)는 아 이러니하게도 삼신론 방향으로 인도하거나(세 개의 분리된 주체들 또는 의식의 중심들), 사벨리안주의로 향하는 두 가지 위험으로 작용한다.⁴⁵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을 기술하는 전통적인 용어 '위격' (*person*)은 - 원래 의미와 반대로- 삼신론적 의미에서 오해하기 때문에, 바르트는 더욱 분명하게 같은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 "양태" (*modes*)에 대해 주장하려는 것이다.⁴⁶

단일성의 강조를 위한 '존재의 양태'라는 용어는 서양전통의 비평으로부터 그리고 바르트로부터 심하게 공격당한 19세기 신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⁴⁷ 하나님의 행위의 언급은 '위격' 개념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격개

42 J. Thompson, *Modern Trinitarian Perspec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21.

43 Leslie, *Trinitarian Hermeneutics*, 100.

44 Barth, *Kirchliche Dogmatik I/1*, 379.

45 Leslie, *Trinitarian Hermeneutics*, 101

46 D. L. Mueller, *Karl Barth*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72), 67.

47 B. Oberdorfer, *Filioque: Geschichte und Theologie eines ökumenischen Problem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360.

념의 적용과 함께 하나님의 행위의 이러한 진술을 통해 바르트는 하나님의 존재론적 개념에 반대한다. 즉 부동의 동자(unbewegten Bewegers)로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적 하나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⁴⁸

콜린스에 따르면 행위와 존재의 구분은 하나님의 존재의 개념을 위한 근원으로써 ‘현실태’(energeia)와 ‘가능태’(dynamis)사이에서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구분을 포기하면서 극복되는 것이다. 콜린스는 계속해서 언급하기를 불행하게도 ‘현실태’와 ‘가능태’의 연합 효과는 단지 우리가 이미 인식했던 스스로 움직이는 한 인격으로서 신성에 대한 강조를 분명하게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태’와 ‘가능태’사이의 관계에 대한 전통은 신성 안에서 위격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부터 어떤 차이점을 유지한다. 고백자 막시무스(Maximus the confessor)의 이해에 있어서, 사람들이 바르트의 관점에서 발견하고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양극성을 피하는 ‘현실태’와 ‘가능태’의 연합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와 존재사이의 관계의 개념을 발견한다.⁴⁹ 콜린스는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하나님의 존재는 ‘되어짐’(becoming)안에 있다는 주장이 어떤 다른 것이 되는 과정 안에 있는 선행하는 존재의 개념을 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Gottes Sein in der Tat)의 이해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행위 뒤에 선행하는 본질이 없다는 주장에 의존한다. 여기에 ‘되어짐’과 ‘반복’에 대한 언어의 근본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가 놓여 있다. 바르트와 그의 해석자들도 이원론과 이극성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존재가 반복 또는 ‘되어짐’이라면,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었고, 다른 것이 되어왔다(또는 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⁵⁰

48 U. H. Körtner, “Der Handelnde Gott: Zum Verständnis der absoluten Metapher vom Handeln Gottes bei Karl Barth,” *Neue Zeitschrift für Systematische Theologie* 31(1989): 24.

49 Collins, *Trinitarian Theology West and East*, 27.

이러한 바르트의 이해는 포이에르바허(L. Feuerbach)와 동선에 있는 것이다.⁵¹ 포이에르바허에 따르면, 기독교 신성의 세 위격들은 단지 분명하게 신적인 위격들과 다른 상상적이고 가정된 위격들이다. 단지 이 위격들은 인격성들의 환영이며 그림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위격들은 이성의 눈에는 단지 환영에 불과하다. 홀로 그들의 위격성이 실현화될 수 있는 조건들 또는 양태들이 단일신론의 지배에 의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단일성은 위격에게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위격들의 자기 자존은 단일성의 자기 자존 안에서 제거된다. 그러므로 포이에르바허에게는, 위격들은 단순히 관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고, 아버지는 아들이 없으면 안 된다.⁵²

포이에르바허에게 위격의 개념은 관계의 개념이다.⁵³ 그러므로 포이에르바허에게 삼위일체는 원래 인간이 인간 본성 안에서 이해하는 본질적은 근원의 구분들의 총체이다. 왜냐하면 신학은 인간학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본성적으로 위격이라는 용어의 이해를 위한 결과들이다.⁵⁴ 포이에르바허에게는 독립적인 존재, 즉 다른 것으로부터 떨어진 존재는 위격과 본체의 본질적인 성격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본질적이다. 그러므로 세 위격들은 세 하나님들 또는 신들을 의미한다.⁵⁵ 이러한 의미에서, 바르트는

50 Collins, *Trinitarian Theology West and East*, 29.

51 윌리스는 바르트의 삼위일체는 포이에르바허의 철학아래서 분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W. W. Willis Jr, *Theism, Atheism and the Doctrine of the Trinity: The Trinitarian Theologies of Karl Barth and Jürgen Moltmann in Response to Protest Atheism*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87), 34-38].

52 L. Feuerbach, *The Essence of Christianity*, trans. George Eliot (New York: Prometheus Books, 1989), 234.

53 Feuerbach, *The Essence of Christianity*, 235.

54 Feuerbach, *The Essence of Christianity*, 232.

55 Feuerbach, *The Essence of Christianity*, 233.

위격개념에 대한 포이에르바허의 비판을 수용한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위격이라는 용어대신 ‘존재의 양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⁵⁶ 그러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또는 다른 것들로부터 떨어진 존재의 개념의 이해는 위격개념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이해와는 다른 것이다.⁵⁷

3 결론

초대교회 저자들에게는 위격이라는 말은 그/그녀의 말과 행동에서처럼 인간 개별성의 표현이다.⁵⁸ 위격이라는 용어는 마스크를 의미하는 라틴어 페르조나(persona)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로마의 극장의 연극에서 배우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⁵⁹ 스탠리 루드만(S. Rudman)⁶⁰에 따르면, 터툴리안(Tertullian)이 가장 먼저 페르조나라는 용어를 사벨리안 이단의 논박에서 사용했다고 지적한다. 프로소폰(prosopon)이라는 용어처럼 페르조나는 드라마적 역할의 관념을 가졌다. 또는 더욱 간결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배우에 의해 쓰였던 마스크를 의미했다.⁶¹ 터툴리안(Tertullian)에게서 어떤 ‘위격’은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라고 언급한다.⁶²

동방교회는 라틴어 단어인 페르조나(persona)를 프로소폰(prosopon)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리고 라틴교회는 휘포스타시스를 실체(substantia)로

56 Collins, *Trinitarian Theology West and East*, 148.

57 Collins, *Trinitarian Theology West and East*, 149.

58 McGrath, *Christian Theology*, 209.

59 S. Rudman, *Concepts of Person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125; H. Bavinck, *The Doctrine of God*, trans & ed. William Hendriksen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7[1951]), 299.

60 Rudman, *Concepts of Person and Christian Ethics*, 127.

61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223.

62 McGrath, *Christian Theology*, 209.

번역했다.⁶³ 비록 페르조나와 프로소폰이라는 용어들이 의미에서는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생각은 동일하다. 특별히 갑바도기아 신학자들은 '갑바도기아 정착'이라고 불린 세 위격들과 한 본성(three Hypostaseis and one Ousia)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구성하였다.⁶⁴

종교개혁자 칼빈(Ioannes Calvinus)⁶⁵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세 위격들로 구분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세 위격들이 세 하나님들이라는 말은 아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며, 라틴과 동방교부들이 삼신론과 일신론으로부터 삼위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 위격(*persona*)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워필드는 '칼빈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휘포스타시스(ὑπόστασις)에서 위격이라는 용어를 찾는다. 그러므로 어찌되었든 인간의 발명품은 아니다'⁶⁶라고 지적한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아들은 신적 본질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휘포스타시스(hypostasis)는 여기서 본질(essence)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격의 의미에서 취해져야만 한다.'⁶⁷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숫자적으로 본질 안에서 하나이고 단지 위격 안에서 구분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⁶⁸

칼빈에게서⁶⁹, 위격이라는 용어는 세 위격들의 구분이다. 구분으로서 위

63 Bavinck, *The Doctrine of God*, 299.

64 Cf. J. T. Lienhard, "Ousia and Hypostasis: The Cappadocian settlement and the theology of 'One Hypostasis,'" in *The Trinity: An interdisciplinary Symposium on the Trinity*, eds. Davis, Kendal & O'Colli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99-121.

65 Ioannes Calvinus, *Institutionis Christianae Religioni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II, eds Gulielmus Baum and Eduardus Cuniz Eduardus Reuss (New York and London: Johnson reprinte corporation, 1864), 1, 8, 2. 이하 *Institutes*로 표기.

66 B.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ed. S. G. Graig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4), 212-213.

67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213; 김재성, "칼빈의 삼위일체론, 그 형성 과정과 중요성," 『조직신학 연구』 2 (2003): 174.

68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215.

격은 반대하는 자들(고발 자들)(*adversus calumniators*)에게 매우 유용(*potissimum usu*)하다.⁷⁰ 그러므로 칼빈에게서 위격이라는 용어는 논쟁의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교부들 또한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⁷¹ 이 용어는 구분을 의미하지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⁷² 칼빈은 “위격은 다른 것들에 연관되어있는 반면 그러므로 나는 인격을 비교통성의 질에 의해 구분되는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실체(*substance*)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현존(*subsistence*)이라는 용어의 의해 우리는 본질(본체 *essence*)과 다른 무엇을 이해한다. 그러나 칼빈에게는 “이 관계는 여기서 구분되게 표현되었다.”⁷³

바르트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위격개념의 거부하는 존재의 유비(*analogia entis*)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⁷⁴ 이것은 바르트의 위격개념의 거부가 신화(*myth*) 아래서 이해된 현대 하나님 이해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⁷⁵ 신화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들의 해석학적 도구를 발견한다.⁷⁶ 자연신학의 거부 또는 존재의 유비(*analogia entis*)의 거부는 바르트의 전체 신학에 골고루 퍼져있다. 용엘은 바르트의 삼위일체교리가 볼트만의 해석 방법론처럼 다른 비신화(*Entmythologisierung*)라고 말한다.⁷⁷

또한 바르트의 ‘존재의 양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담화의 가능성에 대한 거부하려는 그의 노력으로 이 용어가 가지는 전통적 용례와 다르다.

69 Calvinus, *Institutes*, 1, 8, 5.

70 Calvinus, *Institutes*, 1, 8, 4.

71 Calvinus, *Institutes*, 1, 8, 5.

72 Calvinus, *Institutes*, 1, 8, 17.

73 Calvinus, *Institutes*, 1, 8, 6.

74 Isidro, *Die Trinitätslehre Karl Barths als dogmatisches Strukturprinzip*, 588.

75 McGrath, *Christian Theology*, 329-330.

76 McGrath, *Christian Theology*, 57.

77 Jüngel, *Gottes Sein ist im Werden*, 33; P. J. SJ. Rosato, *The Spirit as Lord: Pneumatology of Karl Barth* (Edinburgh: T&TClark, 1981), 57.

비록 '존재의 양태'가 양태론 또는 사벨리안 주의에 기울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양한 의견을 가지지만, 바르트가 이 용어를 잘못 사용했고 잘못 이해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사용한 이유는 전통적 위격 개념에 대한 포이에르바허의 비판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포이에르바허의 비판위에서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반유신론적 해체를 위한 바르트의 의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바르트에게서 이 용어의 문제가 양태론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은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르트의 의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르트의 위격개념의 새로운 적용은 기독교 정통 신학이 아니라는 것이며, 의미가 다른 용어를 자신의 신학적 재구성을 위해 가져왔다는 것이다. 존재의 양태로서 바르트의 위격개념의 연구에서, 오 콜린스(G. O'Collins)⁷⁸는 라너의 이해 뿐만 아니라 바르트의 계시자, 계시, 계시됨(말하자면 세 존재의 양태)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로버트(R. H. Robert)⁷⁹에 따르면 “바르트가 행한 잠재적으로 환원적인 비평은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논리를 펼 때 유의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르트의 유일 기독교론(Christo-monist)적 경향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들의 단일성에 위치시킨 심각한 강조의 원인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르트는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더불어서 인간적인 관계성의 이해(포이에르바허에 기초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들과 한 본체'라는 개념을 대체하였다. 이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위격들 사

78 G. O'Collins, *Tri-Personal God* (New York: Paulist Press, 1999), 175-176.

79 R. H. Robert, *A Theology on Its Way?: Essays on Karl Barth* (Edinburgh: T&T Clark, 1991), 86.

이의 분리나 혼합을 배제하려는 ‘구분’의 의미를 제거하고, 결국 유일기독론, 인간적 상호 관계⁸⁰와 역동성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므로 바르트의 삼위일체는 기독교 삼위일체 개념이 아니다.

80 Henry Jansen, *Relationality and the Concept of God* (Amsterdam: Atlanta, GA, 1995), 77-79. 바르트의 인격개념은 현대의 인격의 상호관계성에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상당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문헌

- 김재성. “칼빈의 삼위일체론, 그 형성 과정과 중요성.” 『조직신학 연구』 2 (2003): 143-189.
- Aboagye-Mensah, R. K. *Socio-Political Thinking of Karl Barth: Trinitarian and Incarnational Christology As the Ground for His Social Action and Its Implication for Us Today*. Boston Spa, Wetherby West Yorkshire: 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er, 1984.
- Barth, K. *Kirchliche Dogmatik I/1: Die Lehre vom Wort Gotte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1940.
- Basil of Caesarea, *De Spiritu Sanctu(Über den Heiligen Geist)*. In *Fontes Christiani*. Translated & Edited by H. J. Sieben. Freiburg: Herder, 1993.
- Bavinck, H. *The Doctrine of God*. Translated & Edited by William Hendriksen.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7[1951].
- Berkhof, L.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6[1938].
- Bradshaw, T. “Karl Barth on the Trinity: A Family Resemblance.”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39(1987): 145-164.
- Calvinus, Ioannes. *Institutionis Christianae Religionis I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II, Edited by Gulielmus Baum and Eduardus Cuniz Eduardus Reuss. New York and London: Johnson reprinte corporation, 1864.
- Collins, P. M. *Trinitarian Theology West and East: Karl Barth, the Cappadocian Fathers, and John Zizioul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Feuerbach, L. *The Essence of Christianity*. Translated by George Eliot. New York: Prometheus Books, 1989.
- Heppel, H. *Reformed Dogmatics: Set Out And Illustrated from the Sources*. Translated by G. T. Thomson. London: Gerge Allen & Unwin Ltd, 1950.
- Heron, A. I. C.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in the Bible, th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and Recent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 Hill, W. J. *The Three-Personed God: The Trinity As A Mystery of Salvation*.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Press, 1982.
- Isidro, C. T. *Die Trinitätslehre Karl Barths als dogmatisches Strukturprinzip*. Bad Honnef: Bock und Herchen, 1983.
- Jansen, Henry. *Relationality and the Concept of God*. Amsterdam: Atlanta, GA, 1995.

- Johnson, W. S. *Mystery of God: Karl Barth and the Postmodern Foundation of Theology*.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1997.
- Jonker, W. D. *Die Gees van Christus: Wegwysers in die Dogmatiek*. Pretoria: N.G Kerkboekhandel, 1981.
- Jowers, D. W. "The Reproach of Modalism: A Difficulty for Karl Barth's Doctrine of the Trinit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6 (2003:2): 231-246.
- Jüngel, E. *Gottes Sein ist im Werden: Verantwortliche Rede vom Sein Gottes bei Karl Barth. Eine Paraphrase*.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1967.
- Körtner, U. H. "Der Handelnde Gott: Zum Verständnis der absoluten Metapher vom Handeln Gottes bei Karl Barth." *Neue Zeitschrift für systematische Theologie* 31(1989): 18-39
- Leslie, B. C. *Trinitarian Hermeneutics: the Hermeneutical Significance of Karl Barth's Doctrine of the Trinity*. New York: Peter Lang, 1989.
- Lienhard, J. T. "Ousia and Hypostasis: The Cappadocian Settlement and the Theology of 'One Hypostasis'." In *The Trinity: An interdisciplinary Symposium on the Trinity*, edited by Davis, Kendal & O'Colli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99-121.
- McGrath, A. E.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4.
- Meijering, E. P. Meijering, *Von den Kirchenvätern zu Karl Barth: Das altkirchliche Dogma in der 'Kirchlichen Dogmatik'*. Amsterdam: J.C. Gieben Verlag, 1993.
- Moltmann, J. *Trinität und Reich Gottes: Zur Gotteslehre*. Gütersloh: Chr. Kaiser, 1994[1980].
- Mueller, D. L. *Karl Barth*.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72.
- Muller, R. A.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Drawn Principally from Protestant Scholas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3.
- O'Collins, G. *Tri-Personal God*. New York: Paulist Press, 1999.
- Oberdorfer, B. *Filioque: Geschichte und Theologie eines ökumenischen Problem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 Pannenberg, W. "Die Subjektivität Gottes und die Trinitätslehre: Ein Beitrag zur Beziehung zwischen Karl Barth und der Philosophie Hegels." *Kerygma und Dogma* 23 (1977): 25-40.
- _____. *Problemgeschichte der neueren evangelischen Theologie in Deutschland*.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97.
- _____. *Systematische Theologie*, Band 1. Göttingen: Vandenhoeck, 1988.
- Powell, S. M. *The Trinity in German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Prestige, G. L. *God in Patristic Thought*. London: SPCK, 1981[1936].
- Robert, R. H. *A Theology on Its Way?: Essays on Karl Barth*. Edinburgh: T&T Clark, 1991.

- Rosato, P. J. SJ. *The Spirit as Lord: Pneumatology of Karl Barth*. Edinburgh: T&T Clark, 1981.
- Rudman, S. *Concepts of Person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Thompson, J. *Modern Trinitarian Perspec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Torrance, A. J. *Person in Communion: Essay on Trinitarian Description and Human Particip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Volume One of Karl Barth's Church Dogmatics*. Edinburgh: T&T Clark, 1996.
- Torrance, T. F. *The Trinitarian Faith: The Evangelical Theology of the Ancient Catholic Church*. Edinburgh: T.&T. Clark, 1988.
- Warfield, B. B. *Calvin and Augustine*. Edited by S. G. Graig.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4.
- Willis Jr, W. W. *Theism, Atheism and the Doctrine of the Trinity: The Trinitarian Theologies of Karl Barth and Jürgen Moltmann in Response to Protest Atheism*.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87.

국문초록

바르트(K. Barth)는 '위격' (person)이라는 용어 보다 '존재의 양태' (Seinsweise)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는 '존재의 양태' 라는 용어를 절대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리고 더욱 단순하고 분명하게 '위격'과 동일한 의미로 표현하려고 했다. 바르트에게서 중세 '위격' (person) 개념은 보에티우스(Boethius)가 정의한 위격 개념으로 '위격은 본성의 이성적인 개별적 실체다'. 바르트는 이 세 위격들은 세 개별을 의미하므로 삼신론이라는 것이다.

판넨베르그(W. Pannenberg)와 몰트만(J. Moltmann)은 바르트의 위격 개념인 '존재의 양태' 개념을 양태론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이시드로(C. T. Isidro), 조월스(D. W. Jowers), 토랜스(T.F. Torrance), 용커(D.W. Jonker), 벌코프(L. Berkhof)는 바르트의 '존재의 양태' 가 사벨리안주의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그리고 힐은 이 두 관점을 절충한 중립적 입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바르트가 사용한 이 '존재의 양태' 라는 용어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려는 인간의 가능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용례와는 다르다. 비록 이 존재의 양태(Seinsweise)가 양태론 또는 사벨리안주의로 기울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바르트는 전통적인 용례 트로포스 휘파르세오스(τρόπος ὑπάρξεως)를 잘못 사용했고 오해하였다. 비록 신성에는 어떠한 다양성이 없지만, 이 위격들 안에 하나 그리고 동일한 신적 존재가 구분된 대상과 영원안에서 표현된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바르트의 '존재의 양태' (Seinsweise)에 대한 이해의 문제는 신적 위격의 전통적 개념에 대한 포이에르바허(L. Feuerbach)의 비평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르트 자신의 '자연신학'에 대한 비평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바르트가 사용한 '존재의 양태'는 인격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사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은 그의 제안을 거부한다.

주제어: 삼위일체, 위격, 존재의 양태, 칼 바르트, 성 바실(Great St. Basil)

A Reformed Criticism on Karl Barth's Concept 'Seinsweis' for Divine Person

Kim, Yong-Jun
Daeshin University

Barth prefers not to use the term 'person', but rather 'mode of being.' With the term 'mode of being(Seinsweise)' Barth intends to express the same thing as expressed by the term 'person' not absolutely but relatively better, more simply and more clearly. For Barth, the Middle Ages' concept 'person' was constituted by Boethius' definition: *personae strationalis naturae individua substantia*. The concept of 'three persons', for Barth, implies three individuals, that is, tri-theism. Pannenberg and Moltmann criticize Barth's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erson as the meaning of modalism. However, Isidro, Jowers, Torrance, Jonker and Louis Berkhof agree that Barth's term 'Seinsweise' is not a kind of Sabellianism. And Hill takes the middle position between critique and support of the term Seinsweise. However, Barth's 'Seinsweise' differs from the traditional usage with his endeavour to reject the possibility of human speaking about God. Although there are verified opinion if the term 'Seinsweise' leans towards modalism(Sabellianism) or not, it is clear that Barth misused and misunderstood the traditional term 'Seinsweise(τρόπος ὑπάρξεως)'. Since this term explains the concept that 'in those Persons or hypostaseis one and the same divine being is presented in distinct objective and permanent expressions, though with no variation in divine content'.

The problem of Barth's understanding 'Seinsweise' is closely connected not only with Feuerbach's critic of the traditional concept of divine Person, but also with Barth's criticism against 'Natural theology'. This Methodology implies another 'Entmythologiang.' Therefore the term 'Seinsweise' cannot be used for the term 'person'. Therefore we, Reformed theology reject his suggestion term

Key Words: Trinity, Person, Seinsweise(Modes of Being), Karl Barth, Great St. Basil